



## 도심권

### ●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.6% 상승.

- 전년동월대비 +1.6% = 소매업의 기여도 -5.3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6.9%p  
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  
※관련설명은부록의기 여도참조

### ●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.8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21.4%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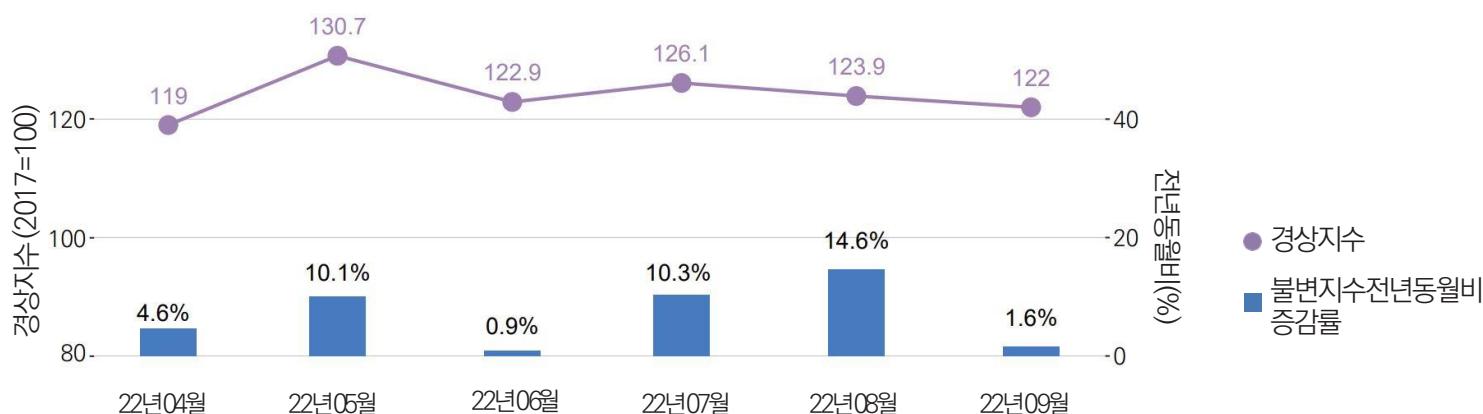
- 도심권 소매업은 전월 하락했던 의복·섬유·신발(8월 -28.9% ⇨ 9월 -42.0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8월 -5.5% ⇨ 9월 -16.3%) 등의 업종이 감소폭이 확대되고 음식료품(-11.4%), 종합소매(-4.2%), 문화·오락·여가(-3.4%) 등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소매업 모든 업종이 감소세를 보이며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도 다시 감소세 전환. 특히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무점포소매(-0.9%)가 10개월 연속으로 하락

· 9월 도심권 소매업은 의복·섬유·신발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음식료품, 종합소매, 연료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가정용품,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
-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(8월 68.3% ⇨ 9월 7.4%)의 상승폭이 대폭 축소하면서 오름폭은 (전월보다) 축소. 음식점(33.2%), 주점·커피전문점(11.7%) 등의 모든 업종이 상승세 유지

· 9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 순으로 소비 증가

### Ⅰ 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### Ⅰ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# Ⅰ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